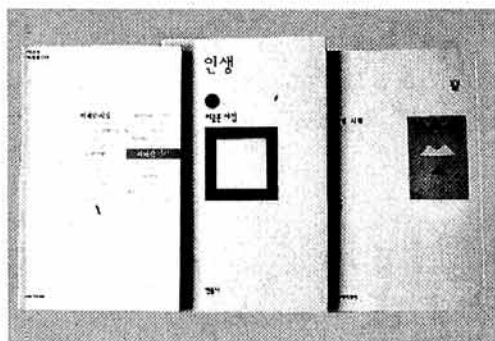


테마특재

휴가중에 詩心을



'외진 별정우체국에 무엇인가를 놓고 온 것 같다/어는 삭막한 간이역에 누군가를 버리고 온 것 같다/그래서 나는 문득 일어나 기차를 타고 가서는/눈이 펄펄 쏟아지는 좁은 골목길을 서성이고/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린 저자전거도 기운댄다/놓고 온 것을 찾겠다고' 떠도는 자의 노래

신경림 시인이 4년 만에 새 시집 <별> (장작과 비평사)을 펴냈다.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고 밝힌 시인의 글에는 사회적 약자와 보잘것없는 존재를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최근 유행하는 시들에 대한 걱정을 담은 시인의 산문도 눈길을 끈다. 시인은 "우리 시가 역지에 의해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시 자체를 왜소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모두 정규성의 상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제/ 돌보기가 필요한 나이/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멀어져서 바라다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원시(遠視))

오세영 시인(서울대 국문과 교수)은 자신의 연시들을 묶어놓



미국의 자유, 인디언의 멸망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디 브라운 지음 / 최석준 옮김



신대륙은 없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백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땅이었을 뿐이다.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그곳의 자연과 환경을 이루며 살아온 '인디언의 땅'이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인디언 역사책 가운데 하나인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디 브라운 지음, 최석준 옮김, 나무심는 사람이 나왔다, 미국 인디언 멸망사)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 비장미 넘치는 인디언의 최후를 당대의 시대 상황과 증언을 통해 재구성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읽힌 인디언 역사책의 하나

"가슴 미어지는 이책을 읽다보면 누가 야만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최후의 인디언들은 이렇게 말한다. "백인들은 우리 고유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자기네처럼 살게 만들려고 했다. (...) 우리가 백인들에게 인디언처럼 살라고 했더라면 그들은 반발했을 것이다. 왜 바꿔 생각하지 못하는가." 미국 서부의 인디언 부족인 샌티 수 우족의 추장 토크수리의 말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미국인의 자유를 위한 제물이 되었고 살아남아서

보면 정말로 누가 야만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붉은구름·아침별·한영형·바보개·시적 영감으로 풍부한 이들을 가졌던 인디언들은, 최초로 백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잡자리와 먹줄을 나눠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백인들로부터 목숨과 터전을 빼앗겼다.

지은이 디 브라운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과거의 인디언이 어땠는지를 알도록 현재의 인디언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다큐멘터리 작가

다른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오늘의 우리는 '인디언'이라는 낱말을 '현대 문명'이라는 말로 바꿔 읽을 필요가 있다. '세계화'라는 말로 대변되는 오늘의 문명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신대륙 대신 전지구를 백인 특히 미국의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현대 문명 자체가 인디언처럼 파괴와 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인디언 멸망사이자 인류 문명의 내일에 대한 예언서로 읽을 필요가 있다.

인디언 멸망사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1492년)에서부터 인디언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디드니 전투(1890년)에 이르는 400여년에 걸친다. 그러나 이 책은 1860년에서부터 1890년까지 30년 동안의 한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인디언의 멸망 전과정을 생생히 복원해 낸다.

다큐멘터리 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 책은 1971년 출간 이후 17개 언어로 번역되어 500만 부 이상 팔렸다. 값 1만8천원.

윤재학 기자

신경림 시인 4년만에 새시집 '별'

이승훈 시인 불교인연 명상적 시

은 시집 <잠들지 못하는 건 사랑이다> (책만드는 집)를 77편, 절망과 사랑의 시'라 명명했다. 삶과 사랑을 바라보는 시인의 깊은 시선을 느낄 수 있다.

'흐린 가을 저녁 찬비는 내리고/ 일월(日月)이여 있음은 무엇이고 없음은 무엇인가/ 언제나 벼락이 있고/ 멀정한 대낮에 비가 오네/ 그러므로 일월(日月)이여/ 좀더 뛰어야 하리/ 이 책상도 뒤고...' (일월)

서문에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를 거쳐 불교와 만나게 된 고마운 인연이다"고 밝힌 이승훈 시인은 시집 <인연> (민음사)에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無住)', 즉 '머무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라 말할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다. "나는 없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는 깨달음으로, 시와 인생에 대해 진지하고 명상적인 시들을 선보인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숨이 찬 것은/ 딱딱하고 두꺼워지는 공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활을 꿈꾸며)

이재무 시인은 여섯 번째 시집 <위대한 식사> (이재무 지음, 세계사에서 시의 영역을 보다 보편적인 삶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 등단 이후 농촌의 생동감 넘치는 삶과 도시의 무미건조한 일상을 그려온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자연파괴와 생태계 복원을 말한다.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 / 강주현 옮김



우리 시대의 '살아 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달라이 라마는 동성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에서 달라이 라마는 동성연애는 제술에 어긋나는 행위가 틀림없지만 폭력이나 살인과 달리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동성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범죄자

평생 경험 '가슴으로 전하는 잠언'

취급하거나 불교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젊은이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교사들에게', '술이나 마약에 빠진 사람들에게' 등 구체적인 대상에게 주는 가르침, 즉 '가슴으로 전하는 잠언'이다. 또한 우리가 고통 받는 가장 큰 원인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생각하면서' 그 방법이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에게 안겨줄 이득과 불행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 담긴 조언들은 그가 '가슴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이며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청아 펴냄, 값 9천원.

만화로 보는 어린이 팔만대장경

김영만 글 / 이행남 그림

흔히 '팔만사천 법문'이라 불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들이 많다.

<만화로 보는 어린이 팔만대장경>은 그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본생경>과 <백유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45개 일화를 가려 뽑았다.

주인공 목록 등자는 어린이들에



본생경·백유경서 뽑은 일화 45

게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유익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위해, 목탁을 타고 세상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일층과 이층도 짓지 않고 화려하고 웅장한 삼층 누각만 지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부자를 만나고 나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결과'가 어디 있다고 저벌까?는 얘기를 들려준다. 동물들도 반교사이긴 마찬가지다. 제 손에 완두 알을 많이 쥐고 있으면서도 땅에 떨어진 완두 한 알을 욕심 내다 손에 쥔 완두 알을 다 떨어뜨린 원승이를 보고 목탁 등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린다.

'지혜를 키워주는 이야기' 20개와 '자비심을 키워주는 이야기' 23개가 실려 있다. 바른사 펴냄, 값 8천5백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문에 2002 여름호

불교문에 2002년 여름호가 나왔

다. 통권 20호인 이번 책에서는 기획특집 불교시인론에 정후스님을 다루었다. 197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스님의 작품과 동원대 고명수 교수의 시인론 '구도와 정화, 그 격마의 희열'을 실었다.

또한 특집으로 박희진, 민영, 정공채 등 38명의 시인이 지난 5월 4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현대불교문인협회 총회시 낭송회에서 발표한 '부처님오신날' 총회시도 담았다. 값 6천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사이론 집계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including '화(Anger)', '신묘장구대다라니경해', etc.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02.737-0695 / 팩스: 02.737-0696

불교속의 문화, 문화속의 불교

2002년 7·8월호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개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생방방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합니다.

- 특집/외국인 스님들의 국내 정착,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불교 세계화의 계도가 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이 왜 한국 불교계를 찾아오는지, 그리고 국내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인지 집중 조명한다.
-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다시 돌아가는 이유
- 외국인 스님들의 교육 및 수계과정과 현황
- 외국인 스님들의 국내 수행처
- 외국인 스님들의 국내 정착, 문제점은 무엇인가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경주 석굴암
- '불국사나 한화가(獻花歌)'

포커스 1- 제1회 한국불교학술대회를 평가한다
포커스 2- 일본 인도학불교학의 마에다 렌가쿠 이사장 인터뷰 (한일 불교학의 교류 전망)

- 특집기고/문화사적으로 본 2002 한일 월드컵
- 월드컵과 한국인, 한국문화를 말한다
불교정점/무엇이 불교적인가
- 현재의 불교 연구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
- "이제는 동아시아학으로서의 불교 연구 필요하다"
영화 속에서 만나는 불교
-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The Man Who Wasn't There)
- 부조리한 삶 속에서 소위된 현대인의 모습

해외 불교 수행센터
- 미국인 클래식 선수가 미국인들의 선(禪) 수행도량으로 설립한 ZPO

칼럼/비평
- 사찰의 또 다른 빛, 벽화를 찾아서 - 공주 마곡사



각질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8, 팩스: (02)719-5062 인터넷 홈페이지: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당대 불교사상과 실천을 조명하는 한국불교의 정론지!

참여불교 7.8월호 발간!



- 머리말 본래의 재일을 되살리자
특집 1 계율, 왜 생활윤리에서 멀어지나
생활윤리로서 서지 못하는 계율 / 김성철 박사
제기문지의 계율수행 지침서 / 조계종 중앙총회 포교문화위원회 편
특집 2 한국불교 주요 종단의 전략과 비전 ①
한국불교 주요 종단의 전략과 비전 / 인적종 편
기획연재 1 정보화 사회와 불교 ①
다지달의 종지 해키니름 / 김도근
기획연재 2 동서문화의 시적과 분기, 그리고,
생활속의 명상
기독교의 그늘 - 한주영
만남 '부처님 오신날'을 기원하며 / 교황제 권근호 박사
특별기고 1 천 단계 헌신도 평화와 행복 / 김용현
특별기고 2 종교NGO운동의 과제 -천주교공제회 중심으로 / 황종영
사찰현대화 연구
경명사원론서 II (역성, 자미한경) / 김종환
사찰경영실용
경영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지 / 정성기
불교의 눈으로 영화읽기
클룩스 혹은 신도들의 명경, 영희의 책 / 김중국
김중천의 경제평론
신승의 날방이 주가 급락의 주범 / 김중천
국제종교동향
이스라엘 방역계부운동 단체, 예리그루브(Yesh Gub) / 국제협력국
종교개혁통신
"교구원사주지 담신자, 자각했다" / 편집위원회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buddha21@budgate.net 110-340 서울특별시 용인동 30-6 신라대역 205호 145-7799

각질간 (참여불교)은 전국 70여개 대(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참여불교와 관련된 좋은 기고문을 상고자입니다. 판매가격 7,000원 / 1년구독료 35,000원 / 구독문의 02-715-7799